

일반적으로 저소득이나 고용상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진로태도 성숙정도가 낮다(O'Brien, Duskstein & Jackson, 1999; Flouri & Buchanan, 2002; 노성환, 2003 재인용). 이는 빈곤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아 자신에 대한 직업기대가 낮아진(Wilson, 1987)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빈곤계층에 머무르게 되면서 빈곤의 상태가 세대로 전승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탈피를 위하여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에 비해 관련 제도들은 아직 그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는 빈곤 청소년대상 교육급여로 학교 등록금과 약간의 학용품 지원만을 실시하고 있고(보건복지가족부, 2009), 충분하지 못한 생계급여로 인해 빈곤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학교 교육 이외의 지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빈곤의 대물림과 관련하여 빈곤청소년들의 교육적 측면이 주요한 매개역할(여유진, 2007)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이 높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교육기회에서 배제되는 빈곤청소년들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학교교육 이외에 청소년자활지원관과 지역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는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취업, 진학을 위한 자립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다소 힘이 벅차 보인다. 즉 그동안 빈곤청소년의 진로 및 빈곤탈피와 관련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위의 기관들을 설립하거나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해 왔지만 빈곤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및 제도적,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실천현장의 자원과 지

식, 기술만 가지고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을 실시함으로써 결국 빈곤세대 전승을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희성, 2002). 최근 실시한 빈곤청소년 3,20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2007)에서도 빈곤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빈곤청소년의 37%가 지난 1년간 과외지도 및 특별활동 등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8%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진로상담을 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고 있지만 빈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이 열악한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빈곤 청소년의 자립과 빈곤의 세대 간 전승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앞서 빈곤 청소년이 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구체화하며 다양한 직업기회를 배우는 등의 적절한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과정(김충기, 1986)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빈곤청소년 진로관련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청소년 진로관련 연구동향들은 대체로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채 보편적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고,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국한시킨 연구일지라도 양육시설의 청소년(신혜령, 2001; 홍미리, 2005; 강철희, 2001)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빈곤계층 청소년의 진로관련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¹⁾.

이와 함께 실제 진로지도정책에서도 빈곤계층 청소년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쉽게 발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진로교육 교과목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고 있고, 노동부는 청소년용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적용하는데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1) 빈곤계층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로서는 빈곤청소년들의 진로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지가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한복남, 2004)와 빈곤청소년의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진로지도의 경험과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이용경험이 영향력 요인임을 밝혀낸 연구(황미정, 2009)가 이루어진 바 있다.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빈곤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결핍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 발달과업 성취에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특수한 욕구를 고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특히 빈곤 청소년들은 주변 자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건강한 성인역할모형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허남순 외, 2005), 체계적 진로지도 기회가 많지 않음으로써 진로 관련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시연, 박은미, 2009). 따라서 일반적 진로교육 이외에 이들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대전승을 낳는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계층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국한시켜 진로 발달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진로발달 중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다루었다.

우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의 개념에서 인간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진로발달모델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김선중, 2005). 즉 청소년기에는 장래 진로에 대해 막연한 생각으로부터 보다 현실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진로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김창수, 1990; 이재분, 1982) 진로발달 과정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맥락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지지 변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 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진로발달과 관련된 이론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빈곤청소년이 관계를 맺게 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빈곤청소년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어떠한지 아울러 검증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분석은 빈곤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환경적 특성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검증한 것으로서 특히 빈곤청소년의 경우 그동안 일반적인 청소년 진로영역에서 다루어왔던 환경과는 매우 상이한 부분에 초점 맞춘 것이다. 즉, 해체된 가정과 빈곤한 상황의 또래집단,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 및 결핍된 자원 등의 특성들이 빈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진로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실제 진로결정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1 : 빈곤계층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제2 : 빈곤계층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제3 : 빈곤계층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빈곤계층으로 국한시켜 살펴봄으로써 향후 빈곤계층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각각에 대한 효과와 이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빈곤청소년 개인적 측면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다루었고 이는 빈곤청소년 진로발달과 관련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의 진로관련 연구들을 주로 검토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대체로 진로관련 모든 행동들은 사회 속에서 결정되므로 개인의 진로발달은 자신이 속한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총체적 인식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Swanson, Daniel, & Toker, 1996). 이와 관련하여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들이 어떻게 개인적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진로발달에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그간 개인의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가 상호 보완적 수준인 인지와 개인적 요인에만 치중해왔고 환경적 맥락요인을 고려한 것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전해왔다. 즉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적 지지와 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자원은 진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적은 관심을 받아왔지만(Lent, Brown, & Hackett, 2000) 최근 들어서야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지지로서 특별히 진로 영역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1989).

보다 구체적인 실증연구로서 Blustein(1997)은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대학생은 심도 있는 진로탐색활동을 수행하면서 준비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직업과 관련한 과업을 수행할 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논한 바 있다. 또한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음을 보고한 연구(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도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은 집단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내고 있었고(오은경, 2003), 진로 미결정수준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보다 높은 진로태도 성숙을 나타냈다(한수현, 2003). 또한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높게 나타나(권용미, 2003) 다시 한번 사회적 지지가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관련한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이 앞서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과연 빈곤계층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세부 내용으로써 사회적 지지 측면이 개인의 특성과 연관을 지으면서 진로결정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실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또한 진정한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반영한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적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청소년 개인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크다. 즉 청소년의 진로관련 개별적 특성이 청소년의 진로관련 결정을 설명하는 정도는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고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 미결정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Gati Krausz & Osipow.,1996) 진로결정과 미결정 수준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개념이다(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연구들은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주로 연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진로결정수준이라는 용어로 진로와 관련한 개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Wanberg & Muchinsky,1992).

청소년의 경우 장래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

서 출발하여 보다 현실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에 이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은 청소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다. 즉 진로 관련 의사결정은 생애발달 주기상 청소년 단계의 주요한 과제로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특히 진로 미결정(Career indecision)은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이슈로서 나이, 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서부터 직업성숙과 진로장애, 자기효능감, 정체성수준, 직업에 대한 지식과 같은 진로관련 특성들의 결과변수로서 알려져 왔다(Creed, Patton, & Prideaux, 2006).

진로결정수준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일반 성인과 대학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가족해체여부, 진로지도경험, 아르바이트경험 등이 다루어졌다. 우선 성별과 진로발달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의견이 분분하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김현옥, 1989; 송영숙, 1997; 이현림, 천미숙, 2004), 남학생의 진로발달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조아미, 2002)도 있으며 남녀 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Crites, 1973; 김관용, 1996; 김대현, 강경찬, 1996)도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력이 높아진다는 연구(Achebe, 1982; Herr & Enderline, 1976; 송영숙, 1997)와 진로결정이 원래 발달론적 관점에 입각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지배적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계획에 있어 가장 커다란 잠재세력이고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Trusty, Watts & Erdman, 1997; Brown, 2004). 청소년 대상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애착이 강하고 대화

를 많이 하며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져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수길, 2000; 신희경, 김우영, 2005). 하지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과 사별 등으로 가족해체비율이 50%에 이르는(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2007) 등 부모 지지자원이 열악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에서도 부모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큰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진로지도 경험을 가지게 되면 진로성숙(정정은, 2004)이 높아지게 되고 수급권 청소년의 경우에서도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성이 높았다(한복남, 2004). 그 외의 영향요인으로는 고등학생의 시간제 취업 경험 즉,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자립준비정도가 높아짐이 보고되고 있으나(Iglehart, 1994; Mech, 1994) 국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비 빈곤 청소년에 비해 빈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 내에 이러한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 개인이 가지는 동기부여 또는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가지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97). 즉 특정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인 것이다(Bandura, 1977).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인간행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적 측면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기효능감은 성취행동이나 진로결정,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진로발달 모델 내로 포함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 우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설명하면서 진로영역에 처음 도입되었는데(Hackett & Bezt,

1981),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이 강한 경우 성공적인 수행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Hackett & Bryars, 1996)함으로써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렇듯 진로선택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개념화되고 진로결정관련 의사 및 행동, 학업성취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Luzzo, 1993; Taylor & Betz, 1983). 특별히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데,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 정도가 진로 미결정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aylor & Betz, 1983, Taylor & Popma, 1990).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고 특별히 결정정도, 확신성 차원과 높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이기학, 이학주, 2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을 약 25%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송영란, 2007)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이시연, 박은미, 2009)에서는 미래계획과 문제해결, 직업정보와 목표선택의 네 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빈곤청소년들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관계나 진로지도 경험 등과 함께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인과관계만을 검증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빈곤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대체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주 접촉하거나 조언을 희망하는 부모나 교사 등의 기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같은 사회적 요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부모와 교사, 친구 등이 교육성이나 직업에 대한 포부, 직업선택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김봉환, 2001).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나, 환경으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고(옥경희, 2001), 주위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진로성숙수준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노미순, 1999).

특별히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짐에 따라 또래 친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구들로부터의 지지는 부모나 형제, 교사 등과 같은 비자발적 관계와는 다른 자발적 상호의존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대인관계의 시초가 되고 부모나 교사와는 다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게 되며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주요한 영향요인이 된다(홍미리, 2005). 결국 친구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탐색과정에서 유용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영향 받은 행동 및 성향들이 적절한 또래 관계를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자신의 흥미나 직업 세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도움을 줌(이현주, 2001)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친구의 지지를 통해 많은 긍정적 효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직접효과(main effect)로서도 기능을 하지만,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개인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절변수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되어져 왔다(최미영, 2003; 김미례, 2006).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가 진로 관련 환경적 요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관련 개인적 특성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조절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의미 있는 타인으로 영역을 나누어 진로결정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만 13세에서 18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 827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지원을 통해 빈곤의 세대전승차단을 목적으로 전국에 28개소²⁾가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자활지원관이 2007년 6월 전국적으로 빈곤청소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집한 원 자료(raw data)를 바탕으로 자료 재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설문조사관련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 자활지원관 실무자와 면접조사원이 지역사회 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측정도구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구분	변수명	측정도구	신뢰도
종속 변수	진로 결정 수준	진로결정수준 척도는 Osipow(1986)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개인의 진로결정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6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Taylor&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을 이기학, 이학주(2000)가 대학생용으로 번안한 척도를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경(2001)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활용하였으며 하위척도로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요인으로 나누어 지고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908$
조절 변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Zimet 등(1988)이 고안한 다차원 지지척도를 김지혜(2002)가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고 가족 4문항, 친구 4문항, 의미 있는 타자 4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905$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빈곤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진로관련 변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구체적인 통제변수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Brown, 2004; 한복남, 2004; Mech, 1994 등)을 반영하여 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 상태와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그리고

2) 전국 28개의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역에 9개소가,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역에 10개소, 광주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역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진로관련 교육 경험유무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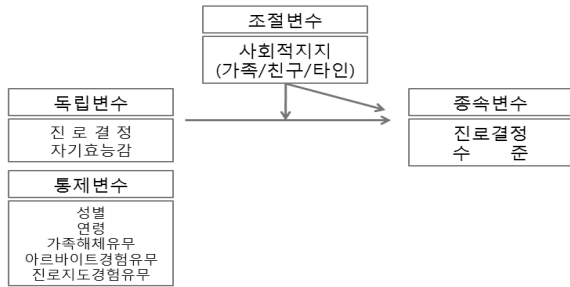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1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부호화(Coding) 과정과 데이터 검토(Data Cleaning)를 거쳤고, 조사대상의 주요 변수들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검증과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419명(50.9%), 여성 404명(49.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7세가 226명(27.3%)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들의 결혼 상태는 현재 결혼 유지중이 382명(46.6%)이었고 이혼이 250명(30.5%)이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사람은 231명(28.3%)이었고 학교 또는 관련기관에서 진로지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1명(33.4%)이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N=823)	남성	419(50.9%)	여성	404(49.1)
	13세	2(0.2)	14세	27(3.3)
연령(N=827)	15세	169(20.4)	16세	221(26.7)
	17세	226(27.3)	18세	182(22.0)
	결혼	382(46.6)	이혼	250(30.5)
부모결혼상태(N=722)	별거	39(4.8)	사별	44(5.4)
	아르바이트경험(N=817)	있다	231(28.3)	없다
진로지도받은경험(N=811)	있다	271(33.4)	없다	540(66.6)

주요 변수의 특성

빈곤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정도,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의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진로결정수준	2.74	.51
독립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98	.61
조절변수	가족 지지	3.36	.84
	사회적 친구 지지	3.54	.87
	타인 지지	3.42	.90

종속변수인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은 4점 척도 상에서 평균 2.74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고,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2.98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조절변수로서 빈곤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친구지지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타인지지, 가족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족지지	타인지지	친구지지	자기효능	진로지도	아르바이트	가족해체	연령	성별
가족지지	1								
타인지지	.417**	1							
친구지지	.457**	.461**	1						
자기효능	.320**	.319**	.292**	1					
진로지도	-.004	-.003	-.004	-.043	1				
아르바이트	-.030	.058*	.058	.074*	-.004	1			
가족해체	-.018	.038	.043	-.050	.003	.022	1		
연령	.056	.064*	.065*	.071*	-.061*	.242**	.052	1	
성별	.053	-.130**	-.094**	.053	-.003	-.025	.081*	.077*	1

* $p < .05$, ** $p < .01$

표 5.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계수(B)	표준오차(S.E)	베타(β)		
통제변수	성별(남=1, 여=0)	0.007	0.036	0.007	0.195
	연령	-0.024	0.016	-0.054	-1.476
	가족해체여부(이혼,사별,별거=0, 결혼유지=1)	-0.031	0.036	-0.030	-0.862
	아르바이트경험여부(경험유=1, 경험무=0)	-0.061	0.041	-0.054	-1.475
	진로지도경험여부(경험유=1, 경험무=0)	0.000	0.000	0.060	1.723†
독립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324	0.031	0.379	10.758***
Constant		2.180	0.276	-	7.893***

$R^2 = 0.150 / F = 20.382^{***}$

* $p < .01$, *** $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연령과 성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진로지도 경험유무, 가족해체유무를 통제변수로 두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아르바이트 경험유무, 진로지도 경험유무와 가족해체유무는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1.0

을 넘지 않았고, VIF값 역시 1.1이하³⁾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변수들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 모델의 총 설명력은 통제변수만으로 회귀식을 구성한 경우 R^2 은 0.8%인 반면, 독립변수를 투입한 경우 14.2%가 늘어 총 설명력은 15%($R^2=0.15$)가 되었고, R^2 의 증가량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그리고 각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통제변수의 경우 진로지도 경험여부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3) 공차한계(Tolerance)의 경우 .1 이상이어야 하고 보수적 관점에서는 .3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차한계와 역의 관계에 있는 VIF값은 현실적으로 3.3을 넘으면 좋지 않다(이익섭 · 이윤로, 2004)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379$)의 경우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 간에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친구, 의미있는 타인의 지지로 나눌 수 있으므로 조절변수 또한 가족과 친구, 타인 각각을 투입하였고 상호작용항 역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가족, 친구, 타자로 나누어 함께 투입하였으며 구체적 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Y = a + \beta_1 * X + \beta_2 * Z + \beta_3 * X * Z + e(\text{오차항})$$

(Y = 진로결정수준, X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Z = 사회적 지지, X * Z = 상호작용항)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상호 작용항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3 이상이었고 VIF값 역시 3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상호 작용항이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델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기 전 회귀식의 설명력이 15.9%($R^2=.159$)이었으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한 이후 2%가 늘어 총 설명력은 17.9%가 되었고, R^2 증가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먼저 각 변수들의 주 효과(main effect)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333$)의 주 효과(main effect)는 정

표 6.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계수(B)	표준오차(S.E)	베타(β)		
통제변수	성별	0.015	0.036	0.015	0.415
	연령	-0.025	0.016	-0.056	-1.558
	가족해체여부	-0.030	0.036	-0.029	-0.838
	아르바이트경험여부	-0.058	0.041	-0.051	-1.405
	진로지도경험여부	0.000	0.000	0.042	1.204
	진로결정자기효능감(A)	0.282	0.031	0.333	8.970***
독립변수	가족지지(X)	0.049	0.024	0.081	2.045*
	타인지지(Y)	0.047	0.031	0.081	1.524
조절변수	친구지지(Z)	-0.018	0.032	-0.030	-0.558
	A*X	0.012	0.035	0.014	0.357
상호작용항	A*Y	-0.004	0.050	-0.005	-0.086
	A*Z	0.132	0.054	0.138	2.459*
Constant		2.030	0.277		7.325***

$R^2 = 0.179 / F = 12.435^{***}$

* $p<.05$, ** $p<.01$, *** $p<.001$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더 높아지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종속변수에 대한 주 효과(main effect)의 경우 친구와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가족의 지지($\beta=.08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족지지의 경우 그 정도가 많을수록 빈곤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interaction effect)의 경우 친구의 지지($\beta=.138$)만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주 효과는 있지만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친구지지의 경우 주 효과는 없으나 조절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의 지지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사회적 지지의 다른 하위차원인 가족의 지지와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는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친구지지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종속변수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친구지지의 상호 작용항을 중심으로 한 회귀식과 그래프를 살펴보겠다. 먼저 이와 관련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진로결정수준} = 2.030 + 0.282 * \text{자기효능감} - 0.018 * \text{친구지지} + 0.132 * \text{자기효능감} * \text{친구지지}^4)$$

위의 회귀식으로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친구지지의 수준을 친구지지 평균을 중심으로 ± 1 표준편차 3집단으로 나누었다. 왜냐하면 연속변수인 조절변수는 그 수준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프 작성에 있어 편리함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홍세희,

2008).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각각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기 때문에 친구지지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0.87이며 이를 활용하여 세가지 조절효과 추정 회귀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친구지지가 높은 집단 : $Y = 0.397 * X + 2.014$
 - ② 친구지지가 중간인 집단 : $Y = 0.282 * X + 2.030$
 - ③ 친구지지가 낮은 집단 : $Y = 0.167 * X + 2.046$
- 위의 회귀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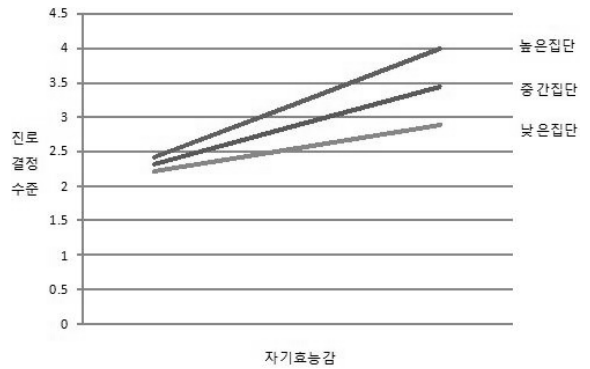


그림 2. 조절효과 그래프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구지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급하고, 낮은 집단이 가장 완만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친구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의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

4) 오차항(error term)은 생략하였다.

을 주는지,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빈곤청소년 대상 진로지원 서비스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지가 확인되었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도 전체 독립변수 중 37.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관련한 의사 및 행동, 학업성취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연구(Luzzo, 1993)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빈곤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주요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실증되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와 관련한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 가운데 가족의 지지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변인들이 진로발달에 기여한다는 사회인지 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2000)이 빈곤 계층의 청소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이 결과는 부모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기대도 높음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McWhirter, Hackett & Bandalos, 1998)에 대해 빈곤청소년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의 지지만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와 관련한 [연구문제 3]에서는 사회적 지지 가운데 친구의 지지만이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의 지지와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위해 청소년 개인은 물론 환경적 요인, 특히 가족과 친구의 요인을 고려한 다차원적 진로지도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빈곤계층 청소년의 진로지도는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진로발달 촉진 개입과 함께 가족 및 친구체계와 같이 이들의 열악한 환경적 요인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개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에서 친구지지가 주효과(main effect)는 없었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은 진로지도 속에서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친구간의 지지는 가족의 지지처럼 빈곤계층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가족이 또래와는 달리 청소년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친구지지정도는 청소년 개인의 진로와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을 수 있으나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진로관련 개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조절요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빈곤청소년 진로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개입과정에 또래관계에서 적절한 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 대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관련 프로그램 개발과정에는 또래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기회를 가짐으로써 진로결정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직접적 영향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가 검증되었다.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은 높아지는 것이

다. 하지만 빈곤계층 청소년의 경우 가족해체비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적절한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또한 가족기능 자체가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나 서비스 개발이 절실하다. 따라서 실천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진로부분에 있어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주거나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써는 저소득 가정 부모나 보호자에게 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관련한 적절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공식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부모나 보호자들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기능이 열악한 경우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발굴하여 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한 가족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개입과정 실증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빈곤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개입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시도(서울시공동모금회, 2007; 이시연·박은미, 2009)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과학적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빈곤청소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 매우 큰 원인변수이므로 빈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원화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로 가족의 지지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빈곤계층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구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가족의 기능에 대한 강화와 가족의 기능이 긍정적이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

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진로결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친구지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친구지지를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친구지지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철희 (2001).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5회 학술대회 발표집.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용미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용 (1996). 중학생의 개인 및 가정 특성이 직업적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연, 강경찬 (1996). 고교생의 진로성숙·진로포부 결정요인탐색. *홍익대학교교육연구*, 12, 5-42.
- 김미례 (2006).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와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2001). 상담전공자의 진로 및 직업개발에 관한 연구. *상담학 연구*, 2(2), 263-277.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05). 미혼모를 위한 생태체계적 지지집단 개입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1989). 청소년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

- 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수 (1990). 진로의사결정프로그램 : 대학생용. 학생지도연구, 23(1), 1-60.
- 김충기 (1986). 진로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노미순 (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환 (200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길 (2000).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서울특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시범사업.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내부자료.
- 송영란 (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희경, 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자료집, 297-323.
- 오은경 (2003). 사회적 지지와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경희 (2001). 저소득층 청소년 초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지식 근원에 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73-87.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시연, 박은미 (2009).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1(1), 141-159.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 이윤로 (2004). 사회복지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이재분 (1982). 중고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천미숙 (2004). 고등학생의 의사결정능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2), 106-128.
- 이현주 (200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15(3), 257-280.
- 여유진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정은 (2004).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성별과 영역활정체감이 진로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최미영 (2003). 사회적 낙인이 화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2007). 빈곤가정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자립욕구.
- 한복남 (2004). 수급권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현 (2003).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황미정 (2009). 빈곤청소년 진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미리 (2005). 양육시설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8).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IV. 구조방정식모형 : 초급, 중급, S&M 리서치그룹.
- 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 학지사
- Achebe, C. (1982). Assessing the vocational maturity of students in the east central state of Nigeri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153-161.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etz, N. E. (1989). Implication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 Brown, S. C. (2004). Where this path may lead: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making for postcollege lif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5(4), 375-390.
- Creed, P., Patton, W., & Prideaux, L. (2006).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 longitudinal cross-lagged analysi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47-65.
- Crites, J.O. (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CA: McGraw-Hill.
- Flouri, E. & Buchanan, A. (2002). The Role of Work-related Skills and Career Role Models i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51, 36-43.
- Gati, L.,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1-25.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ien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 Br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4, 322-340.
- Herr, E. L. & Enderlein, T. E. (1976). Vocational maturity: The effects of school, grade, curriculum and sex.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 27-238.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 Iglehart, A. P. (1994). Adolescents in foster care: Predicting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ren and Youth Review*, 15, 159-169.
- Luzzo, D. A. (1993). *Gender and ethnic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at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Denver, Co.
- McWhirter, E. H., Hackett, G., & Bandalos, D. L., (1998). A casual model of the educational plans and career expectations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66-181.
- Mech, E. V. (1994). *Preparing Foster Adolescents for Self-Support: A new challenge for child welfare service*.

- O'Brien K. M., Duskstein. R. D. and Jackson. S. L., (1999). Broadening Career Horizons for Students in At-risk Environ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7, 215-229.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Swanson, J. L., Daniel, K. K., & Toke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related barriersceptio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Taylor, K. M., & bezt,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 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mod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45-251.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 Trusty, J., R.E. Watts and P. Erdman (1997). Predictors of parents' involvement in theirteen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3(3), 189-201.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 Wilson, W. J. (1987). *The Thuly Disadvantag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imet, S. G. & Farl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 원 고 접 수 일 : 2009.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ocused on adolesc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Tae-young Um
Mok Won University

Kyo-youn Kim
Korea Association Youth Self
sufficiency center

Bok-nam Han
Seoul Gangseo Youth
Self sufficiency center

This study explore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the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827 adolescents, who were enrolled in a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for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Results indicate that higher level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higher levels of career decision-making. In addition, of social support, peer support moderated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No effects of gender, age, family disorganization, and part-time job experience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as fou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career guidance are two folds; One is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of the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The other is tha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ocial support from families and peers should be contextualized in career guidance for adolesc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along with individual factors. Overall, this study lays a groundwork for career guidance when working with adolesc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Key words : poor juvenile,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juvenile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